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대구경북 시도지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 처리 요청 - 17일 국회 방문... 국토위 조웅찬이현승 간사, 여야 대표 면담 - 민·군항 동시개항을 위한 국비지원, 예타면제... 특별법 처리 요청	통합신공항 추진단	
② 포항시 구항에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들어선다 - 지하1층, 지상9층 규모... 포항 구항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	도시재생과	
③ 경북수출 청신호..1월 34억 달러로 전년比 24.7% 급증 - 올해 1월 34.4억 달러로 전년도 1월 수출 27.6억 달러 대비 큰폭 증가	외교통상과	
④ 경북도, 영주에서 도내 7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 고병원성 AI 위험 특별관리 추진, 발생농장 종오리 7천수 살처분 - 사람, 축산차량 등 농장내 위험요인 진입 제한 행정명령 등 특별대책	동물방역과	
⑤ 경북도, 상하수도 분야 그린뉴딜 사업 속도낸다 - 상하수도분야 지난해 보다 27% 늘어난 6,253억원 사업비 확보 - 시설 확충·현대화, 사고 예방 중점 추진...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맑은물 정책과	
⑥ 경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맞춤형 전략 수립 - 전통시장 상품 포장재 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나서	민생경제과	
⑦ 인삼재배 예정지, 토양분석 컨설팅 받으세요 - 풍기인삼연구소 원소분석기 등 첨단장비 구축, 현장대응력 향상	농업기술원 풍기인삼 연구소	

 경상북도	보도자료 【21.2.17(수).】	담당부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작성 자	단 장	최 혁 준		
			사무관	김미정	주무관	김성호
		연 락 처	054-880-8834			

대구경북 시도지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 처리 요청

- 17일 국회 방문... 국토위 조웅천·이현승 간사, 여야 대표 면담 -
- 민·군항 동시개항을 위한 국비지원, 예타면제... 특별법 처리 요청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조웅천·이현승 간사 등 법안심사소위 위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예타면제와 국비지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2월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진선미 위원장과 조웅천·이현승 간사에게 전화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9월 홍준표 의원안(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과 올해 2월 추경호 의원안(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며,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 남

은 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2월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국회 방문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울·경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담보해줘야(재정지원 및 예타면제 등) 한다”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17(수)】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작성 자	과 장	장 상 열		
			사무관	박종태	주무관	김인규
		연 락 처	054-880-3936			

보도일시 : 방송, 인터넷 등(행사 후), 일간지(18일 조간부터)

포항시 구항에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들어선다.

- 지하1층, 지상9층 규모... 포항 구항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 -

경상북도는 17일 포항 남구 송도부두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도의원 등이 참석해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 기공식을 가졌다.

오늘 착공하는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는 철강산업 쇠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신산업 육성 필요에 따라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의 선도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9,449㎡의 규모로 197억원(국비127 도비21 시비49)을 투입해 2022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포항 구항 도시재생 사업개요

- 사 업 명 :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 위 치 : 포항 구항 일원 (송도동, 중앙동)
- 사업기간 : 2019. ~ 2024. (6년)
- 면적&유형 : 759,645㎡ / 경제기반형
- 사 업 비 : 9,562억원(재생사업467 부처연계 1,906 지자체 49 공기관 1,307 민간 6,103)
- ※ 재생사업 재원 : 467억원(국비280, 도비47, 시비140)
- *2019.7.22. 활성화계획 최종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국토부)

포항에 들어서는 첨단 해양산업 R&D센터에는 해양레포츠 가상체험센터, 해양레포츠 첨단장비 R&D연구실과 실험실, 첨단 해양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AIST 등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양 첨단기술 기반 시제품의 상용화 및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해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환경개선과 구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 시키고자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로 도에서는 2014년 영주를 시작으로 현재 38개의 도시재생사업에 7천2백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다.

포항은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도시로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흥해지역 특별재생, 중앙동 중심시가지 형, 송도동 경제기반 형, 신흥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4개지구에 대하여 총 1,331억원이 투입되며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포항은 특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도시로 재탄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시는 시간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번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포항 구항 일원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며 각 지역의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다운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올해 모든 도정을 경제회복과 고용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첨단 해양산업R&D 센터 조성공사」 기공식 행사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2. 17(수). 14:00~15:00
- 장 소 :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번지(송도부두)
- 참석인원 : 100여명
(경제부지사, 시장, 도·시의원, 주민 등)
-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시정홍보 영상물 관람
- 공식행사
 -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참석 주요인사)
 - 기공선포 퍼포먼스(세리머니 연출, 기념사진 촬영)
 - 폐식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14:00~14:20	20'	• 시정홍보 영상물관람	
본행사	14:20~14:22	2'	• 개식	사회자
	14:22~14:28	6'	• 내빈소개	〃
	14:28~14:30	2'	• 국민의례	〃
	14:30~14:33	3'	• 사업설명 및 경과보고	포항시
	14:33~14:38	5'	• 기념사	시 장
	14:38~14:50	12'	• 축사	부지사 외
	14:50~15:00	10'	• 기공선포 퍼포먼스	주내빈
	15:00~		• 폐식	사회자

※ 부지사님 하실일 : 축사, 퍼포먼스, 기념사진 촬영

『포항 구항 도시재생 선도사업』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

- 철강산업 쇠퇴에 따른 지속가능한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개편
-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 계획과 연계한 신경제 거점 형성

- 위 치 :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2번지 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1. 1. 5. ~ 2022. 3. 5.
- 사업규모 : 대지 9,308㎡(시유지) / 연면적 9,449㎡(9층, 지하주차장)
- 사 업 비 : 197억원(국비 127, 도비 21, 시비 49)

※거점조성(HW) 175억원, 운영·지원(SW) 22억원

포항 구항 도시재생 사업개요

- 사 업 명 :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 위 치 : 포항 구항 일원 (송도동, 중앙동)
- 사업기간 : 2019. ~ 2024. (6년)
- 면적&유형 : 759,645㎡ / 경제기반형
- 사 업 비 : 9,562억원(재생사업467 부처연계 1,906 지자체 49 공기관 1,307 민간 6,103)
※ 재생사업 재원 : 467억원(국비280, 도비47, 시비140)
*2019.7.22. 활성화계획 최종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국토부)


- 협력기관 :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AIST

○ 공간구성(층별)

- 1층 : 공장형 실험실(극한환경로봇연구실), R&D 작업장 등
- 2층 : 첨단해양 전시공간, 해양레포츠가상체험공간 등
- 3층 :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공간
- 4층~8층 : 대·소회의실 및 입주기업 오피스 공간
- 9층 : 기숙사형 수면공간, 피트니스센터, 휴게라운지 등

○ 추진경과

- 2018. 8.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경제기반형)
- 2019. 7. : 활성화계획 승인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국토부)
- 2020. 12.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17(수)】	담당부서	외교통상과			
		작성 자	과 장	이응원		
			담당	한영옥	주무관	강효순
		연락처	054-880-2734			

경북수출 청신호...1월 34억 달러로 전년比 24.7% 급증

- 올해 1월 34.4억 달러로 전년도 1월 수출 27.6억 달러 대비 큰폭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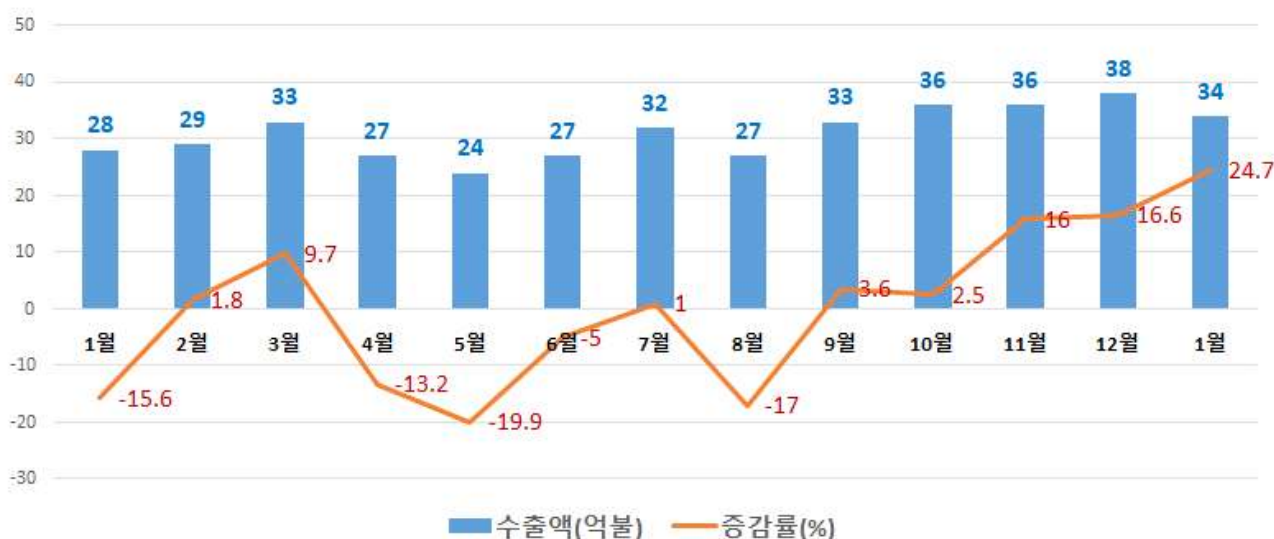
경상북도 올해 첫 수출이 전년 동기 27억 6천만 달러 대비 24.7%가 증가한 34억 4천만 달러(약 3조 9천억원)를 기록하면서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월 국가 수출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431억 달러 대비 11.4%의 증가세를 보였고, 경북도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올해 1월에는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 2020년 경북도 11월 수출 36억 달러(+16.0%), 12월 38억 달러(+16.6%)

* 2021년 경북도 1월 수출 34억 달러(+24.7%)

경북도 2020~2021.1 월별 수출동향 * 통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특히 올해 1월은 비대면산업 호조에 따라 경북도 주력 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부품(4.2억 달러, 295.1%), 무선전화기(3.3억 달러, 122.1%), 광학기기(2.5억 달러, 104.1%), 평판디스플레이(1.5억 달러, 46.5%) , 자동차부품(1.3억 달러, 22.7%) 등 7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수출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총수출액 34억 달러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1위국 중국이 12.6억 달러(+72.6%)고, 2위 수출국 미국은 5.5억 달러(+33.5%), 3위 베트남 2.3억 달러(+10.0%), 4위 일본은 2.1억 달러(-1.7%), 인도가 5위로 수출액 1.2억 달러(+11.2%)를 기록했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3월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온라인 무역사절단을 연간 16회 운영하고, 작년에는 전면 취소되었던 해외전시회에도 오프라인 상품전시와 온라인 상담이 결합된 융합형으로 총 19회 참가한다. 신북방·남방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화상수출상담회도 8회 정도 개최하고, 쿠팡, 라자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도 150개사를 입점시키고 해외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맞춤형 온라인 수출상담도 지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이 수출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나, 도는 수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 며, “올해도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 해외마케팅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수출인프라 지원 사업을 실시해 수출기업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1. 1월 수출입 동향

수출동향

○ (국가) 1월 수출 480억불(전년 동기 431억불 대비 +11.4%)

○ (경북) 1월 수출 34억불(전년 동기 28억불 대비 +24.7%)

< 국가 및 경북도 수출입 실적 >

구분 (억불, %)		2020년		2021년
		1월	1~12월	1월
국가	수출	431 (-6.6)	5,128(-5.4)	480 (+11.4)
	수입	427 (-5.4)	4,675 (-7.1)	443 (+3.6)
	수지	4	452	37
경북	수출	27.6 (-15.6)	371(-1.6)	34(+24.7)
	수입	12.1 (-10.2)	134(-9.6)	12(+1.3)
	수지	15.5	237	22

평가

○ (국가) 1월 총수출(480억불, +11.4%) 40개월 만에('17.8~9월 이후) 2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 * 2020년 12월 총수출(514억불, +12.6%)

① (품목)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최근 우리 수출 상승세 견인

* 고부가가치품목 수출액 증가율(%) : (시스템반도체) 160 (전자) 81.0 (OLED) 521 (의료기기) 640 등

* 15대 주력품목 중 12개 품목이 증가하며, 최근 2년 내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

* IT관련 6개 품목(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이차전지, 컴퓨터)은 3개월 연속 플러스


② (시장) 中(+22.0%), 美(+46.1%), EU(+23.9%) 3대시장 모두 20% 이상 증가

○ (경북) 비대면산업 호조에 따른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등 증가

① (품목) • 증가 : 무선통신기기부품,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광학기기 등

• 감소 : 냉연·아연·아연도강판

② (시장) 對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대만, UAE 증가 對일본, 태국 감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2. 17(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작 성 자	과 장	김 규 섭		
			팀 장	이영미	주무관	박정연
		연 락 처	054-880-3447			

경북도, 영주에서 도내 7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 고병원성 AI 위험 특별관리 추진, 발생농장 종오리 7천수 살처분 -
- 사람, 축산차량 등 농장내 위험요인 진입 제한 행정명령 등 특별대책 -

경상북도는 17일 영주시 장수면 소재 종오리 농장이 도내에서 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에서는 농식품부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1km안의 발생농장 종오리 7천수를 살처분하고, 3km 안에 남아 있는 전업규모 산란계 농장 1개소와 전체 가금류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대 10km내의 가금농가는 30일간, 영주시 전체 가금 농가는 7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3~10km내의 가금농장 20개소와 역학관련 농가 등 2개소도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가금농장에서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영주시에 대해서는 2.18 ~ 2.28일까지 특별 방역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산란계 밀집단지 2개소(동원양계, 소백양계)가 있으며, 도내 최대 산란계 사육단지인 봉화군 도춘양계가 인접해 있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방역거점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 동안 백신접종팀·상차반·가금 진료팀·컨설팅·인공수정 등 가축과 접촉이 많은 사람의 가금 농장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행정명령 조치하고, 사료차량 2일 1회 방문, 농장 출입시 2단계 소독(U자형소독→고압분무기 소독), 분뇨반출 금지, 산란계 농장 가금 운반

차량 진입금지 및 계란 주 2회 반출 등 축산차량 진입제한도 강화된다.

밀집단지 통제초소에서 차량 출입 통제, 소독 및 소독필증 확인여부 등 방역관리 상태를 시군 가축방역담당관이 매일 점검하고, 가용 방역장비를 총동원하여 가금농장 소독을 집중 실시한다.

경북도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다발한 구미시 등에도 이와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방역의 누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AI 발생 종식을 더디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2. 17(수)】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작성 자	과 장	박 기 완		
			사무관	서동균	주무관	우승수
		연 락 처	054-880-3576			

경북도, 상하수도 분야 그린뉴딜 사업 속도낸다.

- 상하수도분야 지난해 보다 27% 늘어난 6,253억원 사업비 확보 -
- 시설 확충·현대화, 사고 예방 중점 추진...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

경상북도는 17일 23개 시·군 상하수도 사업소장·과장이 참석해 ‘2021년 시·군 상하수도 관계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분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경북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수도 316개소 사업에 6,2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4,935억원 대비 27% 증가한 금액으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하수도 분야 그린뉴딜 중점 과제로 수량부문에서는 시설 확충을 통한 보급 확대, 수질 측면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가뭄·수질·도시침수 등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작년 141개소 2,959억원보다 37% 늘어난 167개소 4,0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민의 물 복지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2.9%에서 95%로 높이고, 누수율은 24%에서 15%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23개 전 시·군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포항, 구미, 영덕,

청도, 예천 등 14개 시·군에 865억 원으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돗물 적수·유출 사고를 예방한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작년 117개소 1,976억 원에서 9% 늘어난 149개소 2,177억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물환경 조성과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포항시 등 6개 시·군에 2023년 까지 총 1,637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156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침수대응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모전동, 점촌동)은 금년부터 사업비 292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및 관리체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광래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고 말했다.

2021년 상하수도 관계관 영상회의


- ◇ 2021년 상하수도 시책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도모
- ◇ 도, 시·군간 소통을 통한 상·하수도 정책 발전방향 논의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2. 17.(수) 14:00 ~ 16:00
- 장 소 : 도 영상회의실(206호) ↔ 시·군 영상회의실
- 참 석 : 100명 정도
 - (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맑은물정책과장, 상·하수도팀장, 담당자 등
 - (시·군) 23개 시·군 상·하수도 업무담당 과·소장, 팀장, 담당자
- 주요내용
 - 2021년도 상·하수도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 설명
 - 상·하수도 정책 질의·응답 및 토론 등

2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 개 회	사 회
14:02 ~ 14:10	8'	◆ 인사말씀	환경산림자원국장
14:10 ~ 15:10	60'	◆ 분야별 시책 설명	분야별 담당 팀장
15:10 ~ 15:50	40'	◆ 질의·응답 및 토론	"
15:50 ~ 16:00	10'	◆ 마무리말씀	맑은물정책과장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2. 17(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작 성 자	과 장	운 회 란		
			사무관	안경호	담당자	석연정
		연 락 처	054-880-2655			

경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맞춤형 전략 수립

- 전통시장 상품 포장재 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나서 -

경상북도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별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내 12개 전통시장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친환경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시장 브랜드화 전략을 지원한다.

문경의 중앙시장은 친환경 소재인 종이팩과 시장 캐릭터가 새겨진 보온과 냉방이 가능한 가방을 제작하여, 배송서비스와 장바구니로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고령의 대가야시장에서 만든 포장용 지퍼백은 상품의 위생과 제품의 이미지를 고급화 했으며, 지퍼백에 곡물과 원두 등을 담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작 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행복꾸러미(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구매 한도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하고 있으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상인들의 피해

가 크게 우려된다” 며,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해 전통시장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2. 17(수)】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작성 자	소 장	허 민 순		
			담 당	류영현	담당자	
		연 락 처	054-632-1250			

인삼재배 예정지, 토양분석 컨설팅 받으세요.

- 풍기인삼연구소 원소분석기 등 첨단장비 구축... 현장대응력 향상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최근 인삼 재배 토양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의 인삼 재배지 선정과 재배지 토양관리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풍기인삼연구소는 지난 5년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인삼재배지 토양의 화학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토양자동분석기, 원소분석기, 원자흡광분석기 등의 첨단 분석장비를 구축하여 인삼재배에 적합한 토양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삼은 토양의 염류 농도가 1.0dS/m 이상이 되면 뿌리 발달의 저해를 가져오고 고년근에서는 황증이 유발된다. 특히 최근에는 축분 퇴비를 작물재배 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인삼 재배 예정지의 인산 농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산 농도가 허용범위(밭 400ppm, 논 300ppm) 보다 높으면 인삼의 출아율이 떨어지고 생리장애가 발생하여 인삼 수확 시 품질 저하와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삼은 수확할 때까지 4년 혹은 6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 전에 예정지의 토양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배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 토양검정이 매우 중요하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경우, 재배 예정지의 토지 형태와 토양을 고려하여 동일한 필지의 10~20개 지점에서(300~900평 기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15cm 깊이에서 흙을 채취하여 잘 섞은 후 500g 정

도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풍기인삼연구소에 방문하면 된다.

신용습 경북도농업기술원 원장은 “풍기인삼연구소에 잘 갖춰진 토양 분석시스템을 인삼 재배농가들이 잘 활용하여 풍작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인삼의 유효성분 분석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 경북인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